



**무너지는 육계 국제경쟁력  
시급한 복원이 필요하다.**

중계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한 병아리 생산감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로 육계업은 반사적으로 생산비를 웃도는 출하가격이 유지되어 사육농가는 다소 근심이 줄어들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병아리 공급량이 대폭 감소하여 입추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가격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육계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닭고기 가격 또한 인상되어 지난 해의 경우 환율이 높았던 상반기보다 하반기인 10월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연간 11,728톤이 수입되면서 육

계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걱정은 커지기 시작하였다.

금융위기 당시 육계업계는 사료구입이 어려워 입식량이 감소하여 육계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을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 신용장 개설이 어렵거나, 환율이 높아 수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쁜 의미에서 문제점 해결보다는 살아남은 농가 위주로 차라리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할 정도로 상승하는 출하가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환율이 하향세를 탔고, 미국을 위주로 한 닭고기 수출국들이 주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주종목인 닭다리, 북채, 날개 등의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해 상반기 생산량의 감소로 육계 가격

이 높았던 탓에 육계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일순간에 묻혀 버리는 결과를 빚었다. 가격이 높아도 수입이 되지 않으면 굳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료원료 자급이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나 태국 또는 중국처럼 양계업 자체를 주력 수출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공품이나 특정 부위를 상품화 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생산비가 국제 수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입산물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생산비나 위생, 신선도,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육계업계나 종계업 또는 기타 관련업체들은 환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과 같이 산물시세가 생산비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 사업에 유리하다고만 판단을 하고 있어 향후 환율 하락시에 더 증가하게 될 수입량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 할 수가 있다.

지난 해의 경우 홍콩의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중국산의 가금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져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반사적으로 얻었지만 중국측의 거센 항의로 머지 않아 해제조치가 내려질 단계에 있어 닭고기의 수입량은 더 증가할 여지를 안고 있다.

머지 않아 병아리 생산량도 정상 수준에 이를 것이고, 환율도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육계업에 관련된 모든 부문이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생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임을 제고해 주었으면 한다. 방법의 하나로 육계, 종계, 도계, 사

료, 약품 등 관련업체 대표자들이 대책반을 만들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 양계업의 Y2K 문제 늦기 전에 점검하자.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도 웬만한 자동화 시설과 관심이 있는 경영인이 있다면 쓰임새야 어떻든 간에 컴퓨터 한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주는 컴퓨터가 대부분 연도 인식이 두자리 수자로 되어 있어 당장 2000년부터는 00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1900년인지 2000년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오는 작동오류가 예견된다는 것이 Y2K(Year 2 Kilo)문제이다.

우선 양계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컴퓨터로 인한 문제는 자동제어 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즉 부화기는 계란이 부화되기까지 정확한 날짜에 맞추어 온·습도를 조절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다. 컴퓨터가 연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여 날짜와 시간 등에 오류가 생긴다면 부화중에 대형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산란계 농장의 무창계사 제어 컴퓨터도 마찬가지이다. 선별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구입한 회사에 의뢰를 하여 Y2K 대비를 의논해야 할 것이다.

제작회사들은 나름대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을 것이고 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척을 이룬 곳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컴퓨터의 오작동은 사소한 원인으로도 비롯된다.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대부분 양계장에 설치한 컴퓨터는 연도 인식이

두자리로 된 것이 많다. 그것이 부화기에 연결되었건, 환기제어용으로 이용이 되건 간에 사람을 대신하여 정밀 제어에 이용이 된다면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동화 시설을 한 농가들은 기회를 만들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Y2K로 인해 벗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너무 쪼들린 탓에 부채해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다 보면 역시 또 사소한 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Y2K에 대한 양계업계의 대응을 지적하고자 한다.

## 닭고기 수입증가 대책 국내산 품질로 차별화 하자.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육계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닭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는 새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수입개방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육계업은 저가의 수입 닭고기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육계업이 황폐화될 것을 우려해 갖가지 국제경쟁력 강화에 몰두해 오다가 금융위기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긴장도 함께 풀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닭고기의 사용용도를 놓고 최근 몇 년 간의 흐름에 의해 피해 폭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낙관을 한 것도 사실이다. 수입육은 육가공품 원료로부터 생육을 그대로 사용하는 닭갈비는 물론 이제는 후라이드용으로까지 그 사용처가 광범위해지고 있어 수입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만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1999년부터 닭고기 및 닭고기가 함유된 전 육류 가공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육계인들이 이 규정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여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육이나 돼지고기도 과거에는 전량 냉동육으로 유통이 되다시피하여 소비자들이 수입육인지 국내산 냉동육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냉장육과 냉동육을 확실히 구분하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면서 시장을 넓혀나간 예에서와 같이 닭고기도 국내산은 냉장육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심어지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중종 수급조절이라는 차원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을 시킨다면 소비자들은 수입육과 국내산 닭고기를 구분하지 못하여 결국 국내산을 구입하고 싶어도 수입산과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시장 장악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가 나빠 가정소득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싼 가격의 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안정성과 품질이 앞선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구매층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차별화 전략을 펴면서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농산물 검사소나 시·도청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할 것이다. 닭고기는 가격상 냉장육 수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냉장육과 냉동육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유통하여도 큰 수입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계**